

연령집단 별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

장 수 지[†]

김 수 영[‡]

Erika Kobayashi

경성대학교

Tokyo Metropolitan Institute
of Gerontology

개인주의-집단주의 개념적 틀은 문화적 맥락에서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소속 집단에 대해 갖는 태도인 공동체의식과 연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세 가지 유형의 공동체(지역사회, 활동모임, 가상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연령집단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에 주목하여,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그 영향관계에서의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는 거주 지역의 성비, 연령대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 표집된 20~50대의 성인 남녀 932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유형의 공동체에서의 활동 수준과 각 유형에 대한 공동체의식, 집단주의 성향에서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세 가지 유형의 공동체의식에 대해 공통적으로 강한 정적 관련성을 보인 문화성향은 수평적 집단주의(HC)이었다. 셋째, HC의 공통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속성에 따라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이 관계에 있어서의 연령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연령대와는 크게 차별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40, 50대의 가상공동체의식에 대한 수직적 개인주의(VI)의 효과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체 차원에 따른 공동체 내 사회적 관계망 등 중심적 속성의 차이, 코호트 내지는 생애주기의 차이로 인한 가치관과 행동양상의 차이, 이로 인한 선호 공동체 및 활동수준의 차이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공동체의식, 공동체,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연령집단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3A2033314).

이 논문은 2014년도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장수지,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sjchang@ks.ac.kr

‡ 교신저자: 김수영,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ykim@ks.ac.kr

현대 사회에서 연대성, 공동성, 상호협력 가치의 흐순으로 인한 소외와 고독의 문제는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Nisbet(1962)은 일찍이 공동체의 상실을 지적하며, 산업화와 도시화가 개인의 자유와 물질적 부는 가져왔지만, 그 대신에 인간성의 상실과 사회적 관계의 파편화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공동체 정신, 즉 공동체의식의 부활만이 사회 재건을 위한 시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많은 학자들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공동체의식(SOC: sense of community)은 일반적으로는 구성원들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동질감 등과 같은 심리적 결속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동체의식이 대상이 되는 공동체의 범위와 형태, 속성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사회심리적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근린성(nearness)을 수반하는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므로 지리적, 공간적 단위인 지역사회를 공동체의 핵심으로 보기도 하고, 단순한 지역사회를 넘어 동질성과 일체감을 가지고 상호협력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공동체로 보기도 한다(이경희, 2005).

공동체의식을 집합적 수준에서 보면, Nisbet의 주장과 같이 산업화와 도시화와 같은 시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전통 사회에서보다 현대 사회에서의 공동체의식은 전체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수준에서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 간에 공동체의식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어떤 이는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깊게 관여하여 구성원 간에 긴밀한 연대를 형성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타인과의 관계형성과 유지에 의미를 두지 않고, 소속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느끼지 못 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무엇에서 기인한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개념적 틀을 적용한 문화성향에 주

목하였다. 공동체의식이 개인이 자신의 내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를 의미한다면(McMillan & Chavis, 1986), 개인주의-집단주의의 개념적 틀은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를 문화적 맥락에서 비교, 설명하는 것으로서(Triandis, 1995), 인지·동기·정서 등의 심리과정과 사회 행동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도식으로 사용되어 왔다(양순미, 2012). 따라서 공동체의식과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을 연속적인 맥락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속성상 구성원의 개별 성보다는 구성원 전체의 공동성과 통합을 전제하게 되는데, 개인의 가치성향으로써 타인과의 일체성과 연대보다는 개인의 독특성과 경쟁을 지향하는 경우, 공동체적 가치에 위배되어 그 개인의 공동체의식은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은 그 핵심적 내용이 상호 긴밀하게 연동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나 개인의 행동 차원의 요인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개인의 가치지향과 태도를 지배하는 상위 도식으로서의 문화가치체계에 대한 접근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검토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비교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지리적 공간단위의 지역공동체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한편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적과 가치, 활동을 공유하는 기능적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에는 계나 동창회와 같은 대면적(face-to-face)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도 포함된다. 공동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전통적 공동체와 현대 사회에서 자생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의 형태와 속성을 비교하거나, 가상공동체가 지닌 대면적 공동체의

대체가능성 등, 공동체의 변화양상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하게 공존하는 공동체들에 대한 심리적 결속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은 각기 단편적인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을 뿐, 공동체 유형이나 속성의 차이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상호비교분석 및 해석 등과 같은 통합적인 시도가 부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를 크게 지역사회, 활동모임, 온라인상의 가상공동체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연령집단이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한 도출이다.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그들이 처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혹은 생애주기가 다르므로, 경험과 사고방식, 행동지향에서 연령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Inglehart(1997)는 가치지향성에서의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 즉 세대 차이를 강조하며, 젊은 세대로 갈수록, 성취동기와 경제성장, 이성적, 합법적 권위를 강조하는 “물질주의 가치”보다는,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감을 강조하는 “탈물질주의 가치”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이 이러한 세대 간 차이가 가장 큰 나라라고 지적하였다. 세대차가 크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가치지향성과 행동습성을 보유한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적 문화성향과 공동체와 관련된 행동양상, 공동체의식에서도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그 둘의 관계에 있어서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분석과 해석은, 세대차와 그에 따른 세대갈등으로 집약되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담아낼 수 있는 유용한 접근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세 가지 유형의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지역공동체의식, 활동모임 공동체의식, 가상공동체의식) 간 관계를 검토하

는 것이다. 특히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여,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그 양자간 관계에서의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를 검토할 것이다.

공동체의 개념정의와 공동체의식 선행연구 고찰

공동체(community)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성원들이 의존가능하며, 쉽게 이용 가능한 상호원조적인 관계망(Sarason, 1974)”으로 정의되거나, “하나의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Hillery, 1955)”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공동체의 개념 안에 물리적 생활환경을 공유하는 지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공동의 규범이나 가치, 관심, 목표, 동일시와 신념을 공유하는 관계적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반면, 후자의 정의는 물리적인 환경, 즉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유대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 학자가 공동체의 어떠한 속성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개념적 정의가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지역사회과 삶의 터전의 공유를 통한 사회적 연대에 관심이 있는 학자는 공동체의 “지역성”을 강조할 것이며, 지역 기반의 전통적 공동체가 소퇴하고 개인의 관심과 필요에 의해 다양하게 자생되고 있는 각종 공동체들, 심지어는 온라인상의 가상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이 있는 학자는 공동체의 기능적 속성인 “공동성”에 더 역점을 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공동체들이 병존하는 지금, 공동체 관련 논의의 주요한 축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 대면적인 활동모임, 온라인상의 가상공동체가 공동체로서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 속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이 세 가지 유형의 공동체를 각기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공동체 개념은 각 유형이 갖는 공동체의 속성을

망라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핵심적 속성으로서 “지역성”과 “대면성”이 아닌 “공동성”만을 필요 조건으로 두고, 공통의 규범이나 가치, 관심, 목표, 신념과 유대를 공유하는 관계망으로서 공동체를 정의내리고자 한다.

공동체에 관한 기존의 사회학적 연구가 주로 공동체 그 자체의 속성과 기능, 형태의 변화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 공동체의 형성과정과 유지, 그것이 파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결과물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 왔다면,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역동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 중에서도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의 중요한 주제이다. 공동체의식을 심리학의 주요 개념으로 제기한 학자는 Sarason(1974)으로, 공동체의식을 “공동체 구성원 간에 유사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상호 기대하는 것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며, 한 개인이 갖는 안정된 큰 구조의 일부라는 느낌”으로 정의하고, 그 이후로 이 용어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나 개발에 있어 기본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McMillan 등(1986)은 공동체의식에 관한 이론화와 척도개발을 통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하는 소속감, 구성원과 공동체 상호간의 영향력, 공동체의 자원과 협력을 통한 구성원의 필요 충족, 구성원들의 정서적 유대의 공유”의 네 가지 요소로 개념화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 다양한 공동체 유형별로 제각기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동네에서 도시 전체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며(Mannarini & Fedi, 2009), 그 다음이 학급, 동창회와 같은 활동모임 단위에 대한 공동체의식에 집중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가상공동체에서도 공동체의식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즉 가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멤버십이나 소속감을 가질 수 있으며(Baym, 1995; Greer, 2000), 가상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관계

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Pliskin & Romm, 1997), 공동체 구성원 간의 사회적 지지의 교환을 통해 (Preece, 1999; Greer, 2000), 공동체의식을 보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어떠한 공동체의식이든 간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공동체의식이 개인과 지역사회,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Dalton, Elias, & Wonderman, 2007)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근대화 이전의 전통적 공동체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 있었던 공동체의식이 도시화와 더불어 점차 쇠퇴해 가고, 경쟁과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인간관계가 파편화되고 인간소외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문적 합의 하에, 최근 국내에서도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부류의 연구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공동체의식의 개념화 연구(한상복, 1982; 김경준, 1998; McMillan et al., 1986), 둘째는 공동체의식의 개인과 사회에 대한 영향 연구(오영은, 이정화, 2012; 김명일, 고아라, 임경미, 2013; Prezza & Costantini, 1998), 셋째는 공동체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오승환, 2009; 박가나, 2009; 김지혜, 2012; 한은영, 김미강, 2013)이다. 그 중 본 연구가 위치한 마지막 연구범주는 결국 공동체의식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공동체의식 연구에서 이러한 개인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특정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 관련 특성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을 획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이종한, 1992).

공동체의식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결혼, 자녀의 수와 연령대, 거주 지역과 거주기간, 동거세대 수, 고향여부, 주택소유, 주택유형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김경준, 1998; 이형하, 2005), 지역인지도,

지역사회 평가, 만족도, 주민평가와 같은 지역사회 변수들이 제시되었다(이형하, 2005). 또한 지역축제 참여로 인한 사회자본의 형성이나 주민 자치활동, 교내활동 참여와 같은 사회참여 요인이나 성격 요인으로서 외향적인 성격도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동필, 2006; 박혜영, 김정주, 2012; 서재호, 2013; 성희자, 이강형, 2013). 한편, 지역 사회 외에 소속 학급이나 동아리와 같은 공동체 내지는 공동체의 명확한 경계 없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체의식 영향요인 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정보추구 정치참여 경험, 봉사활동, 종교활동,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참여 등의 사회참여 요인이 제시되었다(김지혜, 2012; 박정서, 2012; 강가영, 장유미, 2013; 한은영, 김미강,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공동체의식 약화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개인주의화, 경쟁의 심화와 인간관계에서의 정서적 유대감 약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의 변화가,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와 대도시의 출현이라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동반되는 필연적 변화라고 전제되어온 점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적 가치체계는 공동체의식 영향요인 검토 시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예컨대 집단 차원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대별되는 문화권 간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비교문화적 접근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한 집단 내에 병존할 수 있는 개개인의 개인주의적, 집단주의적 문화성향과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개개인의 문화적 가치체계로서 내재화된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적인 문화성향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문화 간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적 틀이다. Triandis(1995)에 따르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구분된다. 첫째, 자기(self)의 특성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기의 정의는 개별적인 개체로서 자율적이고 상호독립적인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다. 둘째, 목표설정의 우선순위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충돌할 때 개인의 목표를 더 우선시하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은 집단 목표와 양립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만약 그것이 충돌하게 되면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한다. 셋째, 집단 규범 및 개인의 태도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의 규범보다는 개인의 태도가 그들의 사회적 행동을 규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이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의 규범을 더 중시한다. 넷째, 인간관계에 대한 입장의 차이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간관계를 교환관계(exchange relationships)로 보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인간관계를 공동관계(communal relationships)로 보고 그 특정 관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Mills & Clark, 1982). 이와 같은 개인주의-집단주의 간의 차이는 문화에 따른 중심 가치의 차이로부터 비롯된다(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독립성”이 중심 가치이므로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 개인 고유의 가치, 목표, 통제, 자기주장,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게 된다. 반대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상호의존성” 내지는 “상호협조성”이 중심 가치이므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내집단 관계 내에서의 상호공감, 자기억제, 협동, 양보를 통해 집단구성원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북미 및 서구 유럽으로 대표되는 개인주의 문화

와 동아시아로 대표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은 각 문화의 중심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이는 개개인의 각 문화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는 이러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구분에 더해 동일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내 사람들 간의 평등이나 경쟁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직성(vertical)-수평성(horizental)”의 개념을 추가하였다(김정덕, 모경환, 2011). 수직성은 상하관계에서 불평등을 수용하고 서열과 위계를 강조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수평성은 평등과 동등성을 강조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직적 개인주의(VI)는 남과 경쟁하여 이기는 것을 중시하고, 수평적 개인주의(HI)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수직적 집단주의(VC)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분으로 보고 집단구성원들 간에 상호의존적이나 서로 다르다고 여기며, 집단과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시한다. 수평적 집단주의(HC)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분으로 보지만 집단구성원들을 서로 평등하다고 여기고, 공동체적 목표를 강조하며 협동과 관계를 중시한다(Triandis, 1995; Triandis & Gelfand, 1998).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가 집합적, 문화적 수준에서의 가치체계와 대인관계를 분석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한편, 개인적 수준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적 성향, 집단주의적 성향의 문화성향 개념을 사용한다. 이에 따르면 동일 문화 내에서도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의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Conway, Sexton, & Tweed, 2006; Plaut, Markus, & Lachman, 2002), 이는 한 문화 내에서도 개인마다 자신의 문화에서의 중심 가치와 신념을 수용하고 수행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홍승범, 박혜경, 2013). 따라서 한 개인 안에서도 개인주의적 성향과 집단주의적 성향이 공존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개인주의 성향자 내지는 집단주의 성향자로 분류될 수 있다.

최근 문화성향과 가치관 관련 국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개인주의 성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집단주의 성향도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인의 가치관이 매우 복합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은영과 차유리(2010)는 20~50대를 대상으로 1979년, 1998년, 2010년의 가치관 조사를 비교하며 지난 30년간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와 남녀평등 의식 등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그와 동시에 연령 등에 의한 상하구별을 중시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 기존의 우리 사회가 갖는 집단주의적 성격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덕웅과 이경성(200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치관 조사에서 1970~2002년의 약 30년간의 13개 가치관 순위의 변화를 보았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현실 사회에서 노력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행동”이 줄곧 1순위를 차지하여 주체적 개인으로서의 자기통제성과 역량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개인주의에 대한 선호가 점차 강해짐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사회적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 협동과 우의”는 30년에 걸쳐 거의 순위 변동이 없이 4~5순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의 집단주의 가치관의 선호와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의 관계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단의식으로 이러한 집단의식은 개인의 개별적 이익을 초월하여 개인의 목표와 이익, 관심에 대하여 규제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동체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협력과 단결, 동일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집단주의 문화의 중심 가치 내지는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갖는 속성으로서의 상호의존성, 인간관계 중시, 내집단 목표의 우선시 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따

라서 개인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성향자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성향자들에게서 공동체의식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직관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비교문화적으로 접근하거나 개인적 차원인 문화성향과의 관계로 살펴본 몇몇 연구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위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¹⁾ 간의 관계를 검토한 정영희(2005)의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자들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개인주의 성향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²⁾ 간의 관계를 살펴본 양순미(2012)의 연구 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의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성향은 수평적 집단주의이며 그 다음이 수직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순으로 작용하여, 집단주의 성향이 개인주의 성향보다 공동체의식을 더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과 개인주의 문화인 미국의 공동체의식 수준을 비교한 이종한(1992)의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단,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미 간의 공동체의식³⁾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경우 동창회와 종친회, 향우회와 같은 비자발적 집단에 대해 공동체의식이 높은 반면, 미국인의 경우 종교집단, 친구 등과 같은 자발적 집단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전체 공동체의식 점수가 문화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

1) 공동체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대상자의 소속 집단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측정하였다.

2) 정영희(200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소속 집단에 대해 측정하였다.

3) 직계가족, 친구, 가까운 친척, 먼 친척, 직장동료, 동창회, 취미집단, 이웃, 종교집단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각각 측정하였다.

은 위의 공동체의 특징에 따른 차이가 상쇄된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일 문화권 내에서도 어떠한 특징의 공동체인가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공동체의식 관련 논의에서 공동체의 유형과 속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연성을 제공해 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를 검토한 선행연구 가운데 이종한(199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공동체 유형 별 공동체의식의 차이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공동체의 유형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개인이 그 집단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결속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을 공동체 유형 별로 접근하여 문화성향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부상하게 된 온라인상의 가상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과 문화성향을 연관시킨 선행연구는 부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성향이, 지리적 공간단위 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 지역성을 넘어선 관계적 공동체로서의 활동모임, 더 나아가 대면성이 담보되지 않지만 유대감과 목표의 공유라는 공동성을 보유한 관계망으로서의 가상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에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성향자의 공동체의식이 세 유형의 공동체에서 각기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단, 이종한(1992)의 결과에서처럼 학연, 지연, 혈연에 기초한 비자발적 공동체에 비해 개인의 관심사와 욕구에 기초한 자발적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의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문화성향의 개인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공동체에 더 많이 관여하느냐, 또는 지역사회, 활동모임, 가상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유형의 공동체에서 각기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공동체가 많이 발견되느냐에 따

라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하 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는 것이 “연령집단”이다.

본 연구에서 “연령집단”이 갖는 함의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유형별 다양한 속 성에 주목함과 동시에,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연령집단에 따른 효과의 차이에 주목한다.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 즉 세대차이(generation gap)는 개인이 처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경험과 사고방식, 행동지향에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Inglehart(1997)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물질주의의 가치에서 탈물질주의 가치로의 이전이라는 가치관 변화에서 나타난 세대차는 범국가적인 경향성이며, 특히 한국은 그 경향성이 극단적으로 제시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양극화된 세대차의 저변에는 시대에 따른 정치사회적 역동이 자리하고 있다. 홍덕률(2003)은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 변동을 고려하여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정보화세대의 세 가지 세대로 분류하고, 이들이 서로 다른 이념적 성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산업화세대는 1960, 70년 대 산업현장에서 고도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성 장주의, 반공, 권위주의, 집단주의, 국가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적 보수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집 단이다. 민주화세대는 1953~1969년 출생자로 이는 또다시 민주화 1세대와 2세대로 분류되는데, 70년대에 대학생이던 민주화 1세대는 베이비부 머 세대로 유소년기의 빙곤을 기억하면서 청년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키웠으며, 종교교, 대학 입시의 좁은 관문을 뚫어야 했던 경쟁이 생활화된 세대이다. 민주화 2세대는 386세대로 불리며 이념지향성, 가치지향성,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특징이다. 정보화 세대는 1970년 이후 출생자로 탈정치, 탈이념의 첫 세대이며 경제적 풍요 속에서 문화를 소비하며 수평적

인간관계와 탈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선호하는 특 징을 보인다.

한편 디지털 정보화를 기점으로 하여 세대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Tapscott(1997)는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1977~1997년 출생자들을 N세대(Net Generation)로 명명하고 다른 세대와 가치관, 생 활양식 등에서 크게 구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 으며, 김기환, 윤상오, 및 조주은(2009)는 이들을 디지털세대로 표현하며, 이들이 경제적 효용의 극대화와 개인적 권리, 사생활에 주된 관심을 두는 반면, 사회공동체의 문제나 공동체 활동에 는 비교적 적은 활동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세대연구의 공통된 시각은 연령집 단에 따라 사회문화적 가치관과 삶의 지향점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를 본 연구의 주제에 적용시켜 보자면, 좁은 세대일수록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수평적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집단주의 성향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공동체적 목표나 활동보다는 개인적 관심사에 근거한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즉, 연령집단은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와 활동모임, 가상공동체 각각에 관여하는 정도나 어떠한 공동체를 선호하고 애착을 느끼는지와 같은 공동체 참여 및 공동체의식에서의 세대차를 설명하는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속된 연령집단에서 어떠한 문화성 향이 보편적인지 등 한 사회 내의 개인주의-집 단주의 문화성향의 개인차 편향을 설명하는 변수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령집단에 따른 사회문화적 가치와 행동 양상에서의 차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화성 향, 공동체의식 관련 연구들에서는 청소년과 대학생과 같이 하나의 연령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비교문화 연구로서 사회 전체의 집단 수준 논의에 그쳐, 한 사회 내의 연령에 따른 편 차는 고려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연령효과에 기초한 사회문화적 함

의를 도출함으로써, 한국인의 문화성향과 공동체에 관한 논의의 저변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령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10년 단위의 연령집단 구분 기준을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 변화 추이를 살펴본 나은영 등(2010)의 연구에서도 10년 단위의 연령집단 구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산업화세대-민주화세대-정보화세대 구분, 내지는 N세대의 연령범위는 현재 시점으로 반드시 10년 단위의 연령대 구분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대칭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연령대 별로 비교하였을 때, 연령대 별 생애단계에서의 과업들을 통해 공동체 활동수준과 활동양상을 유추하기도 용이하므로 10년 단위의 연령집단 구분이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대도시인 B광역시, 중소 도시인 G시, 농어촌인 H군에 거주하고 있는 20~50대의 성인 남녀 932명이다. 이들은 조사 대상지역의 성별 및 연령대 별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 표집되었다. 총 대상자 932명의 응답에는 추가로 수집한 B광역시 K대학교 학생 45명의 응답도 포함되었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인원수는 남성 453명, 여성 479명이며, 연령대 별 인원수는 20대 188명, 30대 236명, 40대 256명, 50대 252명이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40.43세 ($SD=11.33$)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공동체의식이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 지므로, 상대적으로 생활 속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20~50대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조사방법은 숙련된 면접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로 2013년 7~8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통계적 분석은 회수된 932부를 대상으

로 실시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이다.

측정 도구

공동체의식

McMillan 등(1986)의 공동체의식 측정도구(SCI: Sense of Community Index)를 지역사회, 활동모임, 가상공동체에 각각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공동체의식은 구성원 의식, 상호영향력, 욕구의 통합과 충족, 공유된 정서적 유대의 네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별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지역공동체의식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근린지역(동네)를 기준으로, 활동모임 및 가상공동체의 경우 현재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모임 및 가상공동체 가운데 가장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 질문하였다.

지역공동체의식의 경우 각 차원별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 지역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만일 이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공통된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다”, “나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다” 활동모임과 가상공동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같은 문항을 사용하되, 지역사회가 아닌 모임과 가상공동체에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의 네 가지 하위차원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공동체의식 점수로 산출하였다. 지역사회, 활동모임, 가상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 척도 12개 문항 간의 내적신뢰도 Cronbach α 값은 각각 .85, .91, .90으로 충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Singelis 등(1995)에 의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성

향(INDCOL: Individualism-Collectivism) 척도를 김기범(1996)이 한국판으로 32문항으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을 다시 수직/수평(Vertical/Horizontal)으로 나누어, 수직적 개인주의(VI), 수평적 개인주의(HI), 수직적 집단주의(VC), 수평적 집단주의(HC)의 4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 각 차원별로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지며, 각 차원별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한다”,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를 나타낸다. 네 가지 하위개념 내의 8개 문항 간의 내적신뢰도 Cronbach α 값은 VI .72, HI .75, VC .69, HC .81로 적절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공동체의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시에, 개인의 사회참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알려져 있는 성별(남/여), 연령, 교육수준(중졸이하/고졸/대학교 재학 · 졸업/대학원 재학 ·

졸업), 경제적 수준(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이하/101~200만 원/201~300만 원/301~400만 원/401~500만 원/501만 원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매우 나쁨/나쁜 편/보통/건강함/매우 건강함)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표 1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성별과 연령대는 표집 시 대상 지역의 성별과 연령대 비율이 반영되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재학 이상이 57.1%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월 소득은 201~400만 원에 과반수가 포함되었다. 건강상태는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건강하다고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의 기술통계 및 이들의 연령 대에 따른 차이

표 2에서는 문화성향의 하위차원인 VI, HI, VC, HC 및 지역사회, 활동모임, 가상공동체에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성	453	48.6	경제적 수준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61	6.6
	여성	479	51.4		101~200만 원	157	16.9
연령대	20대	188	20.2		201~300만 원	232	25.0
	30대	236	25.3		301~400만 원	249	26.8
	40대	256	27.5		401~500만 원	134	14.4
	50대	252	27.0		501만 원 이상	95	10.2
교육수준	중졸 이하	40	4.3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10	1.1
	고졸	355	38.6		나쁜 편	43	4.6
	대학교 재학 · 졸업	469	51.0		보통	345	37.0
	대학원 재학 · 졸업	56	6.1		건강함	405	43.5
					매우 건강함	129	13.8

표 2. 문화성향과 세 유형의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평균(표준편차) 및 연령대 간 차이(ANOVA 결과)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df	F	Post Hoc
지역사회	37.11 (6.39)	34.99 (6.34)	36.19 (6.38)	37.19 (5.96)	39.48 (6.14)	3	21.34***	20대, 30대, 40대<50대***, 20대<40대**
활동모임	45.57 (6.66)	47.69 (7.77)	45.20 (7.15)	45.02 (6.58)	45.47 (5.73)	3	3.36*	40대<20대*, 30대, 50대<20대†
가상공동체	36.65 (7.46)	35.28 (6.68)	36.60 (7.23)	37.39 (7.61)	37.33 (8.28)	3	2.50	-
수직개인 (VI)	25.05 (4.09)	24.95 (4.44)	25.23 (4.07)	24.64 (3.77)	25.37 (4.14)	3	1.58	-
수평개인 (HI)	27.59 (3.93)	28.04 (4.41)	27.72 (3.94)	27.45 (3.83)	27.26 (3.60)	3	1.63	-
수직집단 (VC)	28.06 (3.62)	27.22 (3.96)	27.72 (3.35)	28.26 (3.60)	28.80 (3.46)	3	8.00***	20대<40대*, 20<50대***, 30<50대*
수평집단 (HC)	28.74 (4.03)	28.26 (4.56)	28.17 (3.70)	28.55 (3.96)	29.80 (3.81)	3	8.78***	20대, 40대<50대**, 30대<50대***

주. *** $p<.001$, ** $p<.01$, * $p<.05$, † $p<.10$

대한 공동체의식 각각의 평균값(표준편차)와 함께 20~50대 연령대 간 통계적 차이를 검토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세 가지 공동체의식 가운데 활동모임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와 가상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은 큰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 검증결과를 보면, 지역공동체의식에서 연령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F(3, 928)=21.34, p<.001$). Scheffe에 의한 사후분석 결과, 50대는 다른 모든 연령대에 비해 지역공동체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20대는 50대뿐만 아니라, 40대에 비해서도 유의미하게 지역공동체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활동모임공동체의식 역시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F(3, 600)=3.36, p<.05$), 그 차이는 지역공동체의식에서 나타난 양상과는 정반대로, 20대의 경우 활동모임공동체의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상공동체의식은 연령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문화성향의 네 가지 하위차원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인 VI, HI의 평균값이 각각 25.05, 27.59인데 반해, 집단주의 성향인 VC와 HC의 평균값이 각각 28.06, 28.74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가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다고 지적한 기존의 비교문화 연구결과들과 일관된 결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문화성향은 집단주의적 성향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 검증결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개인주의 성향에서는 연령차이가 제시되지 않았고, 집단주의 성향인 VC, HC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제시되었는데(각각 $F(3, 927)=8.00, p<.001$; $F(3, 928)=8.78, p<.001$), 구체적으로는 더 높은 연령 대일수록, VC, HC가 더 높았다.

주요 변수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

네 차원의 문화성향, 세 가지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 및 연령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

표 3. 문화성향, 공동체의식, 연령 간 이변량 상관관계(Pearson's r)

	1	2	3	4	5	6	7	8
1 지역공동체의식	-							
2 활동모임공동체의식	.25***	-						
3 가상공동체의식	.29***	.18***	-					
4 수직개인(VI)	.15***	.09*	.16***	-				
5 수평개인(HI)	.12***	.26***	.16***	.35***	-			
6 수직집단(VC)	.33***	.41***	.20***	.25***	.38***	-		
7 수평집단(HC)	.39***	.53***	.27***	.23***	.29***	.67***	-	
8 연령	.25***	-.09*	.12**	.02	-.07*	.16***	.13***	-

주. *** $p<.001$, ** $p<.01$, * $p<.05$

다(표 3). 세 가지 공동체의식은 서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그 정도는 강하지 않았다. 집단주의인 VC와 HC의 정적 상관이 매우 강한 것에 비하면, 개인주의인 VI와 HI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아, 개인주의에서의 수직적 성향과 수평적 성향이 서로 다르게 연동되는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수직적 성향인 VI와 VC 간, 수평적 성향인 HI와 HC 간의 관계는 다소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VI와 HC, VC와 HI는 개념적으로는 양극단의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실제의 상관관계는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지역공동체의식 및 가상공동체의식과는 정적 상관, 활동모임공동체의식과는 매우 약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문화성향과의 관계에서는 VC, HC와는 정적 상관, HI와는 약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공동체 속성 및 연구대상자의 각 공동체 활동참여 양상

표 4는 연구대상자들의 공동체의식의 대상인 지역사회, 활동모임, 가상공동체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 및 각 공동체에 대한 활동참여 양상을 연령대 별로 정리한 것이다.

우선 지역사회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지역거주기간이 긴 편이었으나, 연령대 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주택 소유방식은 50대에서 자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20대, 4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자가 소유 비율이 높은 것은 미혼 비율이 높으므로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거형태는 50대의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특징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활동모임 참여양상을 살펴보면,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50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나, 연배가 높아질수록 대면적인 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제한하여 볼 경우, 참여빈도는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활동모임의 평균 개수는 2.1~2.5개로 연령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모임의 종류를 보면, 연령대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활동모임이 동호회와 같이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인 경우가 20대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 40대, 50대 순이었다. 반대로 동창회나 총친회 같은 연고 기반 모임인 경우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대, 30대, 40대로 나타났다. 20대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고등학교 동창이나 대학 동창과의 연결고리

표 4. 공동체의 속성 및 연구대상자의 활동참여 양상

			지역사회				활동모임				가상공동체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거주기간(평균 년 수)	11.8	10.0	12.3	14.4							
지 역 사 회	주택 소유방식(%)	자가	63.0	54.5	68.2	76.6								
		전세	20.1	28.5	20.4	10.7								
		전월세	6.5	10.2	7.5	9.1								
		월세	8.7	5.1	2.4	3.2								
		기타	1.6	1.7	1.6	0.4								
	주거 형태(%)	단독주택	20.7	20.3	23.4	34.5								
		아파트	45.2	47.5	54.7	45.2								
		연립주택/빌라	18.1	14.4	12.1	10.7								
		다세대/다가구주택	6.9	4.2	6.6	6.3								
		오피스텔/원룸	9.0	13.6	3.1	3.2								
활 동 모 임 및 가 상 공 동 체	활동 정도	인터넷 사용유무(%)	유 무								78.7	80.1	62.9	50.0
		모임 참여 유무(%)	유 무								21.3	19.9	37.1	50.0
		활동모임 개수					2.2	2.5	2.3	2.1	1.9	2.3	2.2	1.9
		모임 활동 빈도(월 평균)					2.8	2.1	1.9	2.1				
		온라인자료 업로드 빈도(주 평균)									5.7	2.2	1.9	1.5
		댓글 달는 빈도(주 평균)									13.1	5.8	3.1	2.5
		가상공동체 회원과의 이메일, 쪽지, 메신저 소통 횟수(주 평균)									7.3	4.5	2.1	2.6
		공통의 관심사 공유모임					50.0	34.3	34.0	27.8	77.1	74.1	57.1	50.0
		연고 기반 모임					31.7	28.5	21.8	33.8	13.9	10.6	14.3	25.4
		동종업계 종사자모임					7.3	14.6	16.0	17.2	3.5	6.9	16.1	14.3
	공동체 종류(%)	종교단체 모임					11.0	14.6	16.0	12.1	0.0	2.1	5.6	8.7
		부녀회, 반상회, 학부모모임					0.0	5.8	0.0	8.1	0.0	1.6	3.7	1.6
		정치적 연대모임, NGO					0.0	0.0	1.6	0.5	2.1	2.1	0.6	0.0
		기타					0.0	0.0	0.5	0.5	3.5	2.6	2.5	0.0
		가상공동체 내 인간관계(%)	주로 지인들로 구성 주로 비(非)지인들로 구성								38.2	41.8	56.5	69.8

주. 위의 표에 한해서 표의 간명화를 위해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제시함.

가 강하게 이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연고 기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40대는 가정과 직장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 시기로 연고 기반의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여유가 없는 결과를 반영

하고 있다. 또한 부녀회/반상회/학부모 모임과 같이 주로 지역 기반의 모임인 경우는 50대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창 육아를 경험할 시기인 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상공동체의 속성 및 활동 양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 사용 유무⁴⁾는 20, 30대의 80%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40대, 50대로 갈수록 사용하지 않았으나, 인터넷 사용자 내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거의 대부분이 가상공동체에 소속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 수준에 있어서는 연령차이가 두드러졌다. 20대는 온라인자료의 업로드 빈도와 댓글을 다는 빈도, 가상공동체 회원과의 의사소통 횟수 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확연하게 높았고, 그 다음이 30대였다. 이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매체를 통해 소통해 온 디지털세대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가상공동체 가운데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은 50대에서 20대로 갈수록 높이 참여하였으나, 연고기반 모임은 5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였다. 흥미롭게도 가상공동체 내의 인간관계 구성을 보면 이러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2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기존의 인간관계가 가상공간에 옮겨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비율이 현격히 높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가상공간에서 새롭게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의 공동체의 속성과 활동 양상을 연령대별로 기술한 결과, 연령집단에 따라 공동체 활동의 구조와 활용 내용이 매우 상이하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연고와 지역사회 중심경향이 강한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적 관심사 중심경향이 강하였다.

문화성향과 세 가지 공동체 유형 별 공동체의식 간 관계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를 검토하기

4) 한국인터넷진흥원(2012)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률이 20대 99.9%, 30대 99.5%, 40대 89.6%, 50대 60.1%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경우 20대 78.7%, 30대 80.1% 40대 62.9%, 50대 50.0%로 전국 조사결과보다는 인터넷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해, 문화성향(VI, HI, VC, HC)을 예측변수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지역공동체의식, 활동모임공동체의식, 가상공동체의식을 준거변수로 각각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분석은 연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20~50대의 연령대별 분석으로 나뉘는데, 후자의 경우 연령은 통제변수에서 제외되었다. 표 5, 6, 7은 전체 대상의 분석과 연령대별 분석을 함께 표로 정리한 것이다.

지역공동체의식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지역공동체의식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변수는 $HC(\beta=.28, p<.001)$ 이고, 그 다음이 $VC(\beta=.08, p<.05)$ 이었다. 개인주의적 성향인 VI와 HI는 지역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HC의 정적 효과는 30~50대에서는 높게 나타났으나, 20대에서는 HC가 아닌 VC의 효과($\beta=.30, p<.001$)만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이는 30대 이후의 연령층은 대체로 혼인이나 직장을 통해 이주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경향이 있고, 육아/자녀교육, 생업, 환경, 안전을 위한 지역문제 관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이루는 경향이 있으므로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와 수평적 관계망을 강조하는 HC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20대는 아직 원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사회에는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 형성된 동네 이웃이나 어른 등 수직적 인간관계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수평적인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는 HC보다는 서열과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VC의 성향이 지역공동체의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개인주의 성향 가운데 VI는 30대와 50대에서 상반된 효과를 나타내었다. 30대의 경우 인간관

표 5. 문화성향과 지역공동체의식 간 관계에 관한 연령대별 분석(다중회귀분석)

	전체 (N=914)	20대 (N=182)	30대 (N=234)	40대 (N=250)	50대 (N=248)
	β	β	β	β	β
수직개인(VI)	.04	.10	-.15*	.07	.13*
수평개인(HI)	-.02	-.04	-.02	.06	-.01
수직집단(VC)	.08*	.30**	.08	-.09	-.01
수평집단(HO)	.28***	.04	.37***	.38***	.38***
연령	.23***				
성별(남=1, 여=2)	.01	.04	-.07	-.12	.11
교육수준	-.01	.12	.05	-.13*	-.02
경제적 수준	.11***	.03	.22***	.09	.11
주관적 건강상태	.12***	.13	.10	.10	.15*
F	30.88***	5.18***	10.43***	6.80***	10.46***
R ²	.24	.19	.27	.18	.26

※. *** $p<.001$, ** $p<.01$, * $p<.05$

계에서의 경쟁을 강조하는 VI가 높을수록 지역 공동체의식이 낮아졌는데($\beta=-.15$, $p<.05$), 이는 HC가 갖는 정적효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50대에서 HC의 정적효과와 동시에 VI 역시 정적인 효과($\beta=.13$, $p<.05$)를 보인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앞서 홍덕률(2003)의 세 대 구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민주화 1세대이자 현재 50대인 베이비부머들은 유소년기의 빈곤의 기억과 입시경쟁의 치열함으로 인해 경쟁이 생활화된 세대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활습성과 성향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애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활동모임공동체의식

활동모임공동체의식의 결과는 지역공동체의식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으나, 활동모임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문화성향이 HC인 것은 일관된 결과이다(표 6).

지역사회에 비해 개인의 선택에 의한 참여라는 “자발성”이 강조되는 활동모임에서, 지역공동체의식에서의 결과 그 이상으로 사회적 관계의 정서적 결속과 수평적 인간관계에 대한 지향성은 활동모임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었다.

연령대별 분석에서 20대의 결과가 다른 연령대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VI가 낮을수록, HI, HC가 높을수록 활동모임에서의 공동체의식이 높았다(각각 $\beta=-.21$, $p<.05$; $\beta=.31$, $p<.01$; $\beta=.37$, $p<.01$). 이에 비해 다른 연령층에서는 HC의 정적 효과가 강하게 제시되었을 뿐 그 외의 다른 문화성향 요인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20대 결과의 독특성은 그들이 소속된 활동모임공동체의 종류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앞의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대의 활동모임의 50%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으로, 30대~50대에서 이러한 종류의 모임에 속한 비율이 27.8%~34.3%에 그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지역사회나 직장, 연고 중심

표 6. 문화성향과 활동모임공동체의식 간 관계에 관한 연령대별 분석(다중회귀분석)

	전체 (N=592)	20대 (N=77)	30대 (N=135)	40대 (N=184)	50대 (N=196)
	β	β	β	β	β
수직개인(VI)	-.10**	-.21*	-.14	-.01	.02
수평개인(HI)	.09*	.31**	.08	.03	-.01
수직집단(VC)	.09*	.22	.02	.18	.06
수평집단(HO)	.46***	.37**	.50***	.44***	.45***
연령	-.10**				
성별(남=1, 여=2)	-.11**	-.11	-.10	-.14*	.01
교육수준	.04	.20*	-.08	.07	.13*
경제적 수준	.08*	.07	.02	.06	.23***
주관적 건강상태	.02	.07	.09	.03	-.09
F	34.27***	8.44***	7.78***	14.58***	14.07***
R ²	.35	.50	.33	.40	.38

†. *** $p<.001$, ** $p<.01$, * $p<.05$

의 비자발적 공동체에 비해, 개인적 관심과 개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문화성향은 강한 자아와 개인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HI와 친밀하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HC이며, 경쟁보다는 개별적인 개성의 공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VI의 부적 관련성도 잘 설명된다. 이와 같은 참여 공동체의 속성의 차이가 20대의 분석결과와 다른 연령대의 결과를 구분 짓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상공동체의식

가상공동체는 앞서 살펴본 지역사회와 활동 모임과는 달리,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점에서 대면성이 반드시 전제되지는 않는다. 문화성향을 자기(self)와 타인(others) 간 관계에 대한 재규정이라고 볼 때, 대면성을 전제하지 않는 가상공동체의식에 대한 문화성향의 작동방식은 지역공동체의식과 활동모임공동

체의식에 대한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점이 20대를 대상으로 한 회귀모형의 통계적 비유의미성, 낮은 분산설명력(R^2)을 반영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과를 가상공동체의 대면성 여부 내지는 인간관계 특성과 결부시켜 보면, 20대의 가상공동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기존의 인간관계가 아닌 타인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표 4),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실제적 감각으로서의 문화성향이 가상의 인간관계에서는 잘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가상공동체 내의 인간관계가 기존의 지인들로 구성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런 경우는 기존의 대면적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문화성향의 작동방식과 유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30~50대의 결과에서 지역사회와 활동모임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게 HC는 가상공동체의식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성향 요인이었다(각각 $\beta=.32$, $p<.001$; $\beta=.43$, $p<.001$; $\beta=.32$, $p<.05$). 타인과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성향은 공동체의

표 7. 문화성향과 가상공동체의식 간 관계에 관한 연령대별 분석(다중회귀분석)

	전체 (N=606)	20대 (N=139)	30대 (N=187)	40대 (N=156)	50대 (N=124)
	β	β	β	β	β
수직개인(VI)	.05	.06	-.05	.20*	.17†
수평개인(HI)	.06	.17	.12	-.15	.07
수직집단(VC)	-.02	.20	-.01	-.21	-.09
수평집단(HC)	.22***	-.19	.32***	.43***	.32*
연령	.11**				
성별(남=1, 여=2)	-.09*	.01	-.16*	-.11	-.09
교육수준	.08	.01	.01	.19*	.06
경제적 수준	.08*	.02	.14	-.01	.12
주관적 건강상태	.00	.01	-.04	.04	-.04
F	8.23***	1.15	4.29***	4.43***	3.63**
R ²	.11	.07	.16	.19	.20

주. *** $p<.001$, ** $p<.01$, * $p<.05$, † $p<.10$

형태나 속성에 관계없이 공동체의식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한편 40대와 50대에서는 가상공동체의식에 대한 VI의 정적 관련성이 제시되었는데(각각 $\beta = .20$, $p < .05$; $\beta = .17$, $p < .10$ ⁵⁾, VI와 HC는 개념적으로는 양극단의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가상공동체의식에 대해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HC는 공동체의식을 설명하는 보편적 특징으로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VI의 효과가 40대, 50대라는 중장년층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중장년층이 정보탐색 등을 위해 인터넷을 생활하고 있지만, 청년층처럼 소통과 관계 맷음의 용도로 디지털매체를 일상적으로 충분히 활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장년층 가운데 가상공동

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래 집단보다 한발 앞서 디지털매체를 향유하려는 경쟁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세 가지 유형의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지역공동체의식, 활동모임공동체의식, 가상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 가지 유형의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문화성향은 수평적 집단주의(HC)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의 일부로서 자신을 규정하는 공적 자기개념이 우세하고(Markus & Kitayama, 1991), 집단 내의 인간

5) 50대 결과의 경우, 5% 유의수준이 아닌 10% 유의수준에서의 유의미한 경향성을 나타내는데 그쳤지만, 40대 결과와의 연속성을 위해 결과로 제시하였다.

관계를 교환관계가 아닌 공공관계로 보고(Mills et al., 1982) 상호의존하고자 하는 집단주의적 성향은 소속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결속과 관련된 공동체의식의 중심 속성과 일치한다. 이는 집단주의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의 정적 관련성을 지적한 선행연구(정영희, 2005; 양순미, 2012)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을 예측하는 중심적인 속성으로서 위계와 서열이 중시되는 수직적 성향보다는 평등성과 동등성에 기초한 수평적 성향이 도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족주의와 유교문화를 토대로,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다양한 관행과 정서, 위계질서에 기초한 교류양상들로 인해, 수직적인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된다(한규석, 신수진, 1999). 수직적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서로 간의 위계질서가 확고하고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Triandis & Gelfand, 1998). 위계질서는 나이, 출신, 직위, 경륜 등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상위 서열에 있는 사람은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하위 서열에 있는 사람은 권리보다 의무를 많이 지게 된다. 이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와 소통의 부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병폐 중 하나이다. 서구 문화의 유입과 함께 이러한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한국인들은 점차 수직성보다는 수평성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한규석 등, 1999).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문화변동의 흐름을 볼 때, 소속 집단에 대한 공동체의식은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한 집단 일체감보다는 집단구성원 개개인의 동등성이 전제된 정서적 관계성과 더 큰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나 공동체, 사회 전체에서 집단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집단문화의

창출이 중요하며, 그러한 집단문화는 수평적 문화성향의 개개인의 집합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둘째, 공동체의식의 대상으로서 지역사회, 활동모임, 가상공동체의 세 가지 유형의 공동체 속성이 상이하며, 그로 인해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 역시 각 유형별로 다르게 도출되었다. 우선 세 가지 공동체의식의 평균치를 보면, 활동모임공동체의식이 단연 높게 나타났고, 지역사회와 가상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활동모임은 대면적 접촉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분명한 경계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발적 참여와 공통의 목표 설정을 통해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의식을 형성, 유지하기 쉽다. 그에 비해 지역사회의 경우, 전통적 공동체 해체 담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지역사회는 점차 이질적이 되고 지역성을 근거로 하던 공동체의식은 희박해지고 있으며(오승환, 2009), 본 연구결과는 그러한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가상공동체는 지역성과 대면성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가상공동체 내에서 특정 인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렵다. 이와 같이 집단구성원 간의 정서적인 교류와 연대가 부재한 경우, 공통의 가치와 목표의 보유만으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속성에 따른 차이는 문화성향과 세 차원의 공동체의식 간 관계에서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특히 20대의 결과에서 이러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지역공동체의식에 대해서는 VC의 정적효과만 제시된 반면, 활동모임공동체의식에 대해서는 VI의 부적효과, HI, HC의 정적효과가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20대가 각각의 공동체에서 보유한 사회적 관계망의 차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20대 청년 스스로

가 주체적인 주민으로서 활동하고 관계망을 형성하기보다는 부모 세대가 주체가 되므로 그로 인해 수직적 인간관계가 형성되며 VC의 높은 정적 효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활동모임은 20대가 개인적 관심과 필요에 의해 주체적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객체로서 VC보다는 다른 문화성향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상술한 바와 같이 HC가 공동체의식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세 가지 유형의 공동체 속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주목할 만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속성, 즉 대상 공동체의 공동성, 대면성, 지역성, 경계의 명확성을 포함하여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한 조건의 성립여부에 따라 공동체의식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문화성향이 각각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동체의식 연구에서 지역사회 내지는 학급이나 동호회와 같이 단일 공동체(집단)를 대상으로 한 논의가 주로 전개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의 속성의 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할 수 있었다.

셋째,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연령집단이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주목한 결과,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의 각각의 점수, 그리고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VC, HC의 집단주의 성향은 중장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공동체의식은 20~40대보다는 50대가 높게, 활동모임공동체의식은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에서 HC의 공통된 정적효과를 제외하고 연령대에 따른 특징적 차이가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 지역공동체의식의 경우, 20대에서 VC의 정적효과, 50대에서 VI의 정적효과가 나타났으며, 활동모임공동체의식의 경우, 20대에서 VI의 부적효과, HI의 정적효과가 나타났다. 가상공

동체의식의 경우, 40대와 50대에서 VI의 정적효과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출생동시집단 즉 코호트(cohort)에 따른 차이이며, 또 하나는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이다. 우선 전자의 예를 들자면, 홍덕률(2003)이 제시한 산업화 세대, 민주화 1, 2세대, 정보화 세대의 세대 구분은 코호트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코호트는 생애의 경험이나 개인적, 사회정치적 관심사가 유사하며, 해당 집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지배적인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황상민, 김도환, 2004).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에 따른 세대 구분을 명확히 하지는 않고 연령대별로 분석하였으나, 대략적으로 50대는 민주화 1세대, 40대는 민주화 2세대, 30대는 정보화 세대, 20대는 그 후속 세대로서 신인류 세대(황상민 등, 2004)로 대칭 가능하다.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서구문화에 대한 경험치가 낮고 전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이들은 민주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대동단결하고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향유함으로써 개인의 욕구보다는 사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소속 공동체의 속성을 규정지었는데, 활동모임의 경우 50대는 20대에 비해 개인의 개성이 강조되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보다는 지역사회와 연고에 기반한 모임에서 더 많이 활동하였으며, 가상공동체에서도 연령대 간 활동모임의 속성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40대, 50대로 갈수록 가상공동체가 기존의 인간관계로 구성되는 비율이 더 높아졌는데, 이는 가상공동체가 기존의 오프라인 관계망을 강화하는 역할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20대, 30대는 아동, 청소년기부터 디지털매체의 활용과 가상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을 생활화하고 있는 세대로, 익명성과 개인적 관심사에 기초한 개별적인 관계를 향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각 세대가

경험한 디지털 환경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한편 세대 차이를 바라보는 생애주기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생애는 유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되며 개인이 위치한 생애단계에 따라 학업, 취업, 결혼, 자녀양육과 같은 인생에서의 중요한 경험들을 단계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공존하고 있는 각 세대들은 개별적인 생애단계에 위치해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두드러진 20대의 독특성은 앞서 기술한 코호트로서의 특징이 반영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직 학생 신분으로 취업 전이거나 미혼상태에 있거나 부모와 함께 동거 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경험의 차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30대는 사회문화적 경험으로는 20대에 가장 근접한 세대이지만, 취업과 결혼, 자녀양육 경험 등을 통해 삶의 정착기에 돌입하고자 노력하는 시기이므로 개인적 관심사에 기반한 활동모임에서 20대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각 연령집단이 사회문화적 위치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결과는 각 연령집단이 서로 다른 코호트로서 시대사회적 맥락의 차이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 문화성향과 공동체 활동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로써, 연령집단으로 함축될 수 있는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위치와 환경에 따라 형성된 이질적이고 다양화된 경험과 가치체계가,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에 대해 논의의 실마리를 던져준 셈이다. 인간 심리와 행동에 관한 보편적 경향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대학생 샘플에 편향된 연구가 많다는 점은 이런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연령”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회문화적 배경과 경험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50대의 성인 남녀이지만, 가상공동체 활용과 관련해 60대 이상의 노인인구는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노인세대는 지금의 50대보다도 보수적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이 더욱 강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역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정착하여 공동체의식이 높을 것이지만, 신체적 건강약화와 은퇴 등으로 인해 활동모임에 대한 활동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으로는 공동체 활동과 공동체의식에서 신노년으로 일컬어지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인집단과 병약하고 빈곤한 노인집단 간의 차이도 예측된다. 이러한 노년기의 다채로운 특성들이 반영되었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더욱 풍부해졌을 것이다. 향후의 연구에서 노인세대의 특징을 반영하여 이들의 가치관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가 이뤄진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표집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 중 한 곳을 선정하였고, 성별과 연령대의 비율 할당에 대해 고려하였지만, 확률추출이 아니므로 연구대상자들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대상자의 연령대를 확대하여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활동모임, 가상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공동체의식이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적 차원, 즉 구성원 의식, 상호영향력, 욕구의 통합과 충족, 공유된 정서적 유대로 이루어진다고 전제하고, SOC척도 (McMillan et al., 1986)를 각 차원에 맞게 미세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가상공동체와 대면적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차원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되고 있다. Blanchard와 Markus(2004)의 연구에 의하면, 가상공동체의식의 개념적 차원은 McMillan 등의 SOC 개념적 차원과 비교 시, “상호영향력” 차원은 도

출되지 않았으며, “구성원 의식”보다는 타 구성 원에 인지가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차 이는 대면적 공동체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기 초로 형성된 반면에, 가상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구성원 간의 익명성을 전제한 가상공간이라는 데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차원 의 공동체 별 속성이 다르다는 부분은 강조하였지만, 공동체의식의 하위개념 내의 의미나 상대적 중요도가 공동체 별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 척도로 측정, 비교하였다는 점에 서 상호이질적인 속성의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 의식 비교 연구로서의 한계가 존재한다. 앞으로 서로 다른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에 대한 개념적 차이를 정교하게 비교하여 그 의미를 도출 할 수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가영, 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김경준 (1999).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 외집단 구별: 문화비교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환, 윤상오, 조주은 (2009). 디지털세대의 특 성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16(2), 140-162.
- 김명일, 고아라, 임경미 (2013). 초기청소년의 사회참여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24(1), 71-84.
- 김정덕, 모경환 (2011). 문화성향과 다문화 감수성 관계 연구. *교육문화연구*, 17(3), 193-226.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 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3.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정서 (2012). 청소년의 정보추구 정치참여 경험에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10), 45-71.
- 박혜영, 김정주 (2012).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축제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9(3), 47-66.
- 서재호 (2013). 주민자치 활동 참여와 공동체 의식: 부산광역시 4개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437-459.
- 성희자, 이강형 (2013).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참여와 공동체의식이 “배타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4), 315-332.
- 양순미 (201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집 단주의 성향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국 중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329-345.
- 오승환 (2009). 도서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9, 1-20.
- 오영은, 이정화 (2012). 사회적 관계망 크기와 지역사회공동체의식이 단독가구 농촌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독거노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555-580.
- 이경희 (2005).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21, 65-79.
- 이종한 (1992). 공동체 의식에 관한 개인주의-집 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2), 76-93.
- 이형하 (2005). 대도시 지역 노인과 농촌지역 노

- 인의 공동체 의식 관련 요인 비교연구. 노인 복지연구, 231-254.
- 정영희 (2005).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공동체 의식, 대인 신뢰 및 유사성 각각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이의 선호가치 변화: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덕웅, 이경성 (2003).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 변화: 30년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49-67.
- 한상복 (1982). 한국인의 공동체의식. 정신문화, 12, 1-25.
- 한은영, 김미강 (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3, 95-124.
- 홍덕률 (2003). 한국사회의 세대 연구. 역사비평, 가을호, 150-191.
- 홍승범, 박혜경 (2013). 문화성향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125-150.
- 황상민, 김도환 (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 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 차동필 (2006). 대학생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28(1), 169-182.
- Baym, K. N. (1995). The emergence of community in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In S. G. Jones(Ed.) *Cybersociety: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and community*. Thousand Oaks, CA: Sage.
- Blanchard, A. L., & Markus, M. L. (2004). The experienced "sense" of a virtual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The Data Base for Advances in Information Systems*, 35(1), 64-79.
- Conway, L. G., Sexton, S. M., & Tweed, R. G. (2006). Collectivism and governmentally initiated restrictions: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is across nations and within a n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20), 20-40.
- Dalton, J. H., Elias, M. J., & Wonderman, A. (2007). *Community Psychology: Linking Individuals and Community*. Belmont: Thomson Wadsworth.
- Greer, B. G. (2000). Psychological and social functions of an e-mail mailing list for persons with Cerebral Palsy, *Cyber Psychology*, 3, 221-233.
- Hillery, G. A. (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2), 12-29.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6), 1245-1267.
- Mannarini, T., & Fedi, A. (2009). Multiple sense of community: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2), 211-227.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Mills, J., & Clark, M. S. (1982).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In L. Wheel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Beverly Hills, CA: Sage.
- Nisbet, R. A. (1962). *Community and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laut, V. C., Markus, H. R., & Lachman, M. E. (2002). Place matters: Consensual features and regional variation in American well-being and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1), 160-184.
- Pliskin, N., & Romm, C. T. (1997). The impact of e-mail on the evolution of a virtual community during a strike, *Information & Management*, 32, 245-254.
- Preece, J. (1999). Empathic communities: Balancing emotional and factual communication, *Interacting with Computers*, 12, 63-77.
- Prezza, M., & Costantini, S. (1998).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Investigation in three different territorial context.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8, 181-194.
- Sarason, S. B. (1974).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 Jossey-Bass: San Francisco.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Tapscoff, D. (1997).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 New York: McGraw-Hill.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ver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18-128.

1 차원고접수 : 2014. 01. 12.

수정원고접수 : 2014. 03. 13.

최종게재결정 : 2014. 03. 13.

Cultural Disposition and Sense of Community in Different Age Groups

Suje Chang

Soo-Young Kim

Erika Kobayashi

Kyungsung University

Tokyo Metropolitan Institute
of Gerontology

The conceptual framework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core groups in a cultural context. Therefore, individualism-collectivism is related with sense of community (SOC), which refers to an individual's personal attitude to the commun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individualism-collectivism cultural disposition and SOC toward three types of community, namely, territorial, activity-based, and cyber community, respectively. In particular, this work paid attention to the socio-cultural implications of age groups, differences in cultural disposition due to membership in a particular age group, SOC, and relationships between cultural dispositions and SOC. A survey was conducted on 932 men and women aged 20 to 50 year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ifferences were seen in the community activity level, SOC, and collectivism tendencies in all three types of community brought about by membership in an age group. Second, horizontal collectivism (HC) commonly had a strong positive effect on all three types of SOC. Third, in spite of the common effect of HC, distinct relationships were observed between cultural dispositions and SOC depending on the nature of each community type and age group. In the case of participants in their 20s, overall results showed different trends compared with other age groups. Meanwhile, the positive effect of vertical individualism (VC) toward SOC for cyber community was notable in people in their 40s and 50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rought by the nature of particular communities, including core group social networks, differences in values and behavior aspect per age group, and differences in community preference and activity level per cohort or life cycle group.

Key words : sense of community, community, individualism-collectivism cultural disposition, age group